

덥다 못해 뜨겁다...광주·전남 전 지역 폭염 특보

35도 넘는 곳 속출...일부 20일째 특보 속 열대야도 극성 온열·냉방병 환자 증가세...오후 2시~5시 야외활동 자제를

덥다 못해 노출된 팔다리가 데일 것 같은 뜨거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찜통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올 여름 들어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오후 시간대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면서 논이나 밭에서의 농작업을 특정 시간대 금지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35.3도, 곡성(옥과) 35도, 구례 33.8도, 여수 33.4도, 영암 32.9도, 장성 33.6도, 함평 33도, 해남 33.2도, 화순 32.1도 등을 기록했다.

여기에 습도가 더해지면서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불꽃 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광주와 화순, 나주, 영광, 함평, 순천, 광양, 보성, 장성, 구례, 곡성, 담양 등에는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도가 넘는 날이 2일 이상일 때)를,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제외한 전남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도가 넘는 날이 2일 이상일 때)를 발표했다. 앞서 일부 섬 지역은 폭염특보에서 제외됐으나 이날에는 섬지역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다.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20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는 밤에도 극성이다. 밤 사이(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10일 넘게 나타난 곳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수에서는 올 들어(7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날이 13일에 달했으며 목포는 11일, 광주에서는 4일을 기록하면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찜통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광주 17명, 전남 58명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7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에는 더위로 인한 피로와 탈진 등 온열 관련 환자들이 늘고 있으며, 더위를 식히기 위한 냉방기기 가동 시간이 길어지면 서 냉방병을 호소하거나 여름 감기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 "특히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외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여 양산으로 폭염 피하세요 폭염이 이어진 28일, 광주 동구청 입구에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심양산을 빌려주고 있다. 더위가 끝나는 9월까지 대여하는 양심양산은 1인당 1개, 최장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생활 공구 무상으로 빌려드려요

광주 남구 달피달팽이 마을에 '똑딱 공구 사랑방' 오픈 마을 주민, 빈집 제공...공유 주방 등 공동체 문화 조성

광주 남구 월산동 '달피달팽이' 마을에 생활 공구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공구 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유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월산동 지역주민들의 공유 공간인 달피 사랑방에 '똑딱 달피달팽이 마을 공구 사랑방'을 오픈했다.

생활 공구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가정 방문을 통해 소규모 불편 사항을 처리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똑딱 달피달팽이 마을 공구 사랑방'은 월산동에 거주하는 한 마을 리더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뜰마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참여로 사업비를 확보해 공유 공간인 달피 사랑방에 새뜰마을 꾸며주며, 이곳에 공구 사랑방과 공유 주방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똑딱 달피달팽이 마을 공구 사랑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전통 드릴을 비롯해 예초기·플라이어 등 25가지 공구를 무상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산동 주민이면 누구나 빌려 쓸 수 있으며, 빌린 공구는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반납하면 된다. 공구 예약 및 대여 신청은 전화(062-607-4661)로도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연대, 미안마 불씨 살리기 전국 공동행동

31일 '판봉피 집회'·내달 8일 '8888 민주항쟁' 기념 행사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광주시민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미안마 광주연대'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미안마에 대한 연대 및 돕기 활동에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8일 미안마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광주연대 활동상황 공유, 미안마 현지 지원 방안, 모금액 사용 방법, 향후 활동 등을 논의한다.

광주연대는 최근 미안마 시민들이 군부의 잔혹한 시위 진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심에

서의 항쟁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언론 보도 역시 줄어들어 미안마 연대의 불씨가 약해졌다고 판단, 다시금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안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판봉피 집회'(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위라는 뜻)도 예정돼 있다.

광주연대는 1988년 8월 8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미안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기념일인 다음달 8일 전국 공동행동으로 군부 쿠데타 이후 고통받는 미안마인들에 연대하고 그간 한국에

서 진행던 연대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미안마 전시와 추모공간의 새로운 디자인, 재단에서 제작한 미안마 연대 기념품(파다옥꽃 키링)을 소개한다.

광주연대는 "현재 미안마 국민들은 쿠데타와 코로나19에 이어 홍수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지난 26일 기준 미안마에서는 시민 934명이 군경의 총알에 목숨을 잃었고, 체포된 6913명 시민 중 65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연대는 지난 3월 11일 출범해 미안마 민주항쟁 지지를 위해 모금운동, 전국 공동행동, 성명서 발표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년 상반기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락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